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제 1 차 이사회**

2025 년 3 월 29 일 오후 1 시부터 3 시 30 분까지 Schaumburg Golf Club 의 Chandler Banquet 에서 제 1 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회의 기록은 봉윤식 총무(사회대 96)가 담당하였다. 회의는 한의일(공대 62) 동문의 선창에 따른 교가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부회장이 전체 이사 79 명, 참석 및 위임이사 52 명으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였다. 임원 소개 시간에는 회장의 소개에 따라 임원들이 참석 이사들에게 인사하였으며, 이사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25 년부터 2027 년까지 활동할 신임 이사 추천 및 인준이 다루어졌다. 회장이 추천된 신임 이사들을 소개하고 인준을 요청하였으며, 참석 이사들의 동의와 박수로 인준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안건은 2025 년도 행사 계획안 발표 및 인준이었다. 총무는 년 2 회의 이사회와 골프 대회를 포함한 월별 행사 계획을 소개하였고, 참석 이사들은 동의 및 박수로 계획안을 인준하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24 년 결산 내역 및 2025 년도 예산안 발표 및 인준이 진행되었다. 이태호 재무가 예산안의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를 설명하였으며, 참석 이사들의 동의와 박수로 2024 년 결산 및 2025 년 예산안이 인준되었다. 네 번째 안건은 각 분과 위원회 신임 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것이었다. 회장은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장학기금관리 위원회, 장학생선발 위원회, 차차기(2025 년) 회장 선발 위원회에 신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소개하였고, 참석 이사들은 동의 및 박수로 이를 인준하였다. 다섯 번째 안건은 추계 2 차 이사회와 음악회 동시 추진에 대한 논의였다. 회장의 제안에 따라 행사를 담당하는 이소정 동문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참석 이사들의 동의와 박수로 추진이 인준되었다.

안건 토의 후에는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한의일 위원장은 "Bylaw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rticle 3, Section 3 에 근거하여 장학기금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동창회 산하 기관 소개 및 기타 행사 계획 공유가 있었다.

Golden Club 은 활발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을, 관악 Club 은 연 2 회 모임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음악, 북클럽, 수영, 스와재 동아리가 소개되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세종문화회 경연 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창회 지원에 대한 감사가 언급되었다. 시카고 한인 문화원이 커뮤니티의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되었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후, 폐회 동의와 함께 이사회의 폐회가 선언되었다. (▲▼ 사진: 소진문 치대 58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EIN: 36-3266729 | Naperville, Illinois, United States

**Form 990-N (e-Postcard)**  
Organizations who have filed a 990-N (e-Postcard) annual electronic notice. Most small organizations that receive less than \$50,000 fall into this category.

<b>Tax Period:</b> 2024 (01/01/2024-12/31/2024)	<b>Mailing Address:</b> 940 N CENTRAL AVE WOOD DALE, IL 60191 United States	<b>Gross receipts not greater than:</b> \$50,000
<b>EIN:</b> 36-3266729	<b>Organization has terminated:</b> No	
<b>Organization Name (Doing Business as):</b>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b>Principal Officer's Name and Address:</b> KYOO SEUNG CHO 940 N CENTRAL AVE WOOD DALE, IL 60191 United States	<b>Website URL:</b> https://snuaa.org/main/chicago-chapter/

## 시카고 동창회, IRS 로부터 2024 년 세금면제 지위 회복!

1983 년, 시카고 동창회는 일리노이주에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하고 IRS 로부터 세금 면제 지위(Tax Exempt Status)를 부여 받았다. 이후, 매년 IRS 에 Form 990 EZ 로 세금 보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1 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시카고 동창회는 미주총동창회의 시카고 지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독립적으로 IRS 에 세금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2012 년 회계연도까지는 미주총동창회가 IRS Form 990 을 보고하면서 그룹 면제 번호(Group Exemption Number: 3784)를 기입하여, 시카고 지부가 세금 면제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1 년, 시카고 지부가 IRS 에 제출한 세금 보고는 거절되었으므로 2024 년, Tax Exempt Status 를 회복하기 위하여 Form 1023 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IRS 에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장학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이름과 지급한 장학금 액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시카고 지부는 1986 년 이후 265 명의 학생들에게 \$319,000 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학생 이름과 함께 제출하고 Tax Exempt Status 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 면제 자격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면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IRS 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내용이 IRS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였다. 특히 연간 총수입이 20 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5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990 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 면제 지위를 유지하려면 IRS 간행물 pub 557 를 매년 검토하고 규정에 맞게 보고된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IRS 웹사이트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를 방문하여 기관의 이름 또는 EIN(고용주 식별 번호)을 입력하여 세금 면제 상태와 재정 정보가 공개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이 최초 등록된 State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2023 - 2025 선출 이사 :

구경희(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용환(공),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훈태(사회), 박영규(농),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안창혁(사), 왕진한(공), 유희두(사),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영우(문), 이정숙(간), 이창호(공), 장윤일(공), 지우영(공),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문), 황치룡(문),

### 2024 - 2026 선출 이사 :

강영국(수), 광영로(수), 김선웅(공),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주(공), 김정주(문), 김준우(의), 김학수(공),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장열(공), 유기정(간), 이승자(사),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형원(약),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의일(공), 홍승우(사회), 홍청일(약),

### 2025 - 2027 선출 이사 :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연화(음), 김영준(문), 김용성(상), 김윤태(의), 김호범(상), 문병훈(사),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소진문(치), 신순천(원), 연경자(약), 이경미(미),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용락(공), 이정일(농), 장영수(공), 정호(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한경진(상), 한재은(의),

**2025 년도 임원진:** 회장 정성일(공대 86), 수석부회장 이동균(공대 75), 부회장 이준수(공대 76), 김훈태 (사회 84), 총무 봉윤식 (사회대 96) 재무 이태호 (공대 87), 섭외/홍보 황찬주 (인문대 84), News Letter 이준수(공대 76), 봉윤식 (사회 96) Web Master 김수현 (생활대 98), 황찬주 (인문대 84), 골프 소진문 (치대 58), 김훈태(사회 84), 사진 김수현 (생활대 98), 홍청일 (약대 57), 김동희(공대 66), 소진문 (치대 58) 특별간사 황찬주 (인문대 84), 이소정 (음대 84), 감사 한재은(의대 59), 김수현 (생활대 98), 동아리모임 음악: 이영우(문리대 66), 댄스: 황찬주(인문대 84), 독서: 박종희(의대 69), 수영: 김동엽 (사대 86), 고문 역대회장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Area, Inc.

2215 Fox Boro Ln, Naperville, IL 60564; (301) 395-7285; Website: [www.snuaachicago.org](http://www.snuaachicago.org), email: [snuaachicago@gmail.com](mailto:snuaachicago@gmail.com)

**골든클럽(회장: 안창혁, 사 65E)**, 어느덧 새 임원단과 함께 2025년 골든클럽이 시작된 지 반년입니다. 매달 첫 목요일, BBQ Garden 에는 칠십여 명의 동문들이 모여 정겹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 미처 참여 못했던 동문들이 새롭게 합류하며 유대를 돈독히 하는 모습은 언제나 흐뭇합니다. 지난 4, 5 월 모임에서는 동문들의 재능 기부로 수준 높은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4 월에는 김동희 동문(공 66)이 "추사의 세한도"의 역사와 기증 스토리를, 5 월에는 김영원 동문(사 67)이 "Is AI Blessing or Curse?"라는 제목으로 AI 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친목을 넘어 삶의 지혜를 넓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문 간의 정을 더욱 깊이 하고자, 6 월 첫 목요일에는 선 두 분의 동문들이 유람선을 타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건축미를 감상할 것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함께 점심을 즐기고 'Fly Over Chicago'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9 월 초에는 마흔여 명의 동문들이 4 박 5 일간 덴버 록키 산맥을 관광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사: 안창혁 사 65E)

### 골든클럽 2025년 잔여 일정 (6 월 - 12 월)

- 6 월 5 일: 시카고 시내 1 일 관광 (월례회 없음)
- 7 월 3 일: 월례회 (세미나: 이건홍 (공 75):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 8 월 7 일: 월례회 (세미나: 박광덕 (음 61): 한국고유의 "창")
- 9 월 4 일: 월례회 (세미나: 연경자 (약 65): 마리아나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
- 9 월 9 일 ~ 13 일: 덴버 록키 관광
- 10 월 2 일: 월례회 (세미나: 윤봉수 (간 69): 서예의 예술)
- 11 월 6 일: 총회
- 12 월 4 일: Holiday Luncheon      ▶ 김동희 동문 (공대 66E) "추사의 세한도" 강의



**북클럽(회장: 박종희, 69E) 모임 소식**은 잔잔한 기대감을 안겨준다. 오는 5 월 24 일 오전 11 시, 한인문화원에서 펼쳐질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독서 토론을 넘어 삶의 깊숙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리사 시의 '섬의 여인들 Island of Sea Women'이다. 리사 시. 1955 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으나, 그녀의 삶의 궤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그녀의 작품들은, 이미 전 세계 39 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섬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제주도의 작은 해녀 공동체를 무대로 펼쳐진다. 파도의 거친 숨결과 역척스러운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그곳에서, 김영숙과 박미자라는 두 여인의 끈끈한 우정이 시대의 격랑 속에서 피어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이 그들의 삶 위에 드리워진다. 어린 시절, 푸른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함께 물질을 배우던 영숙과 미자. 그들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존재였다. 조용하고 신중한 영숙과, 활발하고 독립적인 미자. 성격은 달랐지만,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는 해녀로서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일본의 식민 통치,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는, 두 여인의 우정에 씻을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킨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들의 운명은, 믿었던 관계에 오해와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심한 트라우마와 엇갈린 발걸음은 그들의 재회를 끝내 허락하지 않는다.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두 여인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섬의 여인들'은 단순한 두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주 해녀 공동체의 강인한 삶의 모습, 그리고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고된 삶의 여정에서 피어나는 연대 의식,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서, 곳곳하게 삶을 이어가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영숙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때로는 미자의 내면을 드러내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과 깊은 갈등을 섬세하게 조명한다. 독자들은 영숙과 미자의 우정과 갈등을 따라가며,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섬의 여인들'은 우정과 사랑, 상실과 화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여성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복원하는 감동적인 서사이다. 제주 해녀라는 독특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격동의 한국사를 살아낸 여성들의 강인함과 슬픔을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낸 수작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기사: 박종희 의대 69E)

2025 임원회/이사회/총회 행사		산하기관 및 동아리 행사
1 월	24 일(금) 12:00 ~ 인수인계 (Bank Account Transfer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든클럽(안창혁)</li> <li>관악클럽(김수현)</li> <li>음악동우회(이영우)</li> <li>수영 (김동엽)</li> <li>스와재 (황찬주)</li> <li>낙시 (김동엽)</li> <li>산행 (봉윤식)</li> <li>북클럽 (박종희)</li> <li>시카고 동창회 홈페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및 주소 변경 등록</li> </ul> 
2 월	28 일(금) 위임장(Proxy) 송부 - 이사 위임장 및 회비	
3 월	16 일(일) 17:00 ~ 2 차 실행임원회의 (이사회 준비) 29 일(토) 13:00 ~ 1 차 이사회, @ Chandler's (Schaumburg Golf)	
5 월	1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야유회 준비) 31 일(토) 11:30 ~ 야유회 - Busse Woods #32 (예약 완료)	
6 월	0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14 일(토) 12:00 ~ 춘계 골프대회 ( Hilldale GC ) (예약완료) 20-22 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 - St Paul Hotel, Minnesota	
7 월	11 일(금) 장학생 선발 공시	
8 월	30 일(토) 장학생 접수 마감 14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9 월	06 일(토) 12:00 추계 골프대회( Hilldale GC ) 21 일(일)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 및 선발완료 2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2 차 이사회준비)	
10 월	12(일) 16:00 ~ 가을음악회/2 차 이사회 - 한인 문화원 비스코 홀 (예약완료)	
11 월	30 일(일) ~ 실행임원회의 (총회 준비)	
12 월	7 일(일) 15:00 ~ 총회, 장학금 수여식, 송년파티 - At Chandler's (예약완료)	

###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이사회비 납부 (55 명)

강영국(수), 구경희(의), 김동희(공), 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주(문),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백준철(공), 서상현(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윤일(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대현(공), 조중행(의), 지우영(공),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동창회비 납부 (63 명)

강영국(수), 구경희(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원(사), 김영호(의), 김옥자(간),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수(문), 김정주(문),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박종희(의), 백준철(공), 서상현(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원인숙(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영우(문), 이소정(음),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기남(문), 장윤일(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대현(공), 조중행(의), 지우영(공),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일반경비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 구경희(\$1,000), 김윤태(\$300),

일반경비 지원 : 윤봉수(\$200), 장윤일 (\$2,000), 정승규(\$500), 지우영(\$1,000), 한경진(\$1,000),

부고: 2025 년 1 월 6 일 정연학 동문님(공 63E), 1 월 21 일 최의필 동문님(의 53E), 4 월 21 일 이계형 동문님(공 52 졸업),  
5 월 15 일 김 건 동문님 (문 63E)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Area, Inc.

2215 Fox Boro Ln, Naperville, IL 60564; (301) 395-7285; Website: www.snuachicago.org, email: snuaachicago@gmail.com

##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마다가스카르를 걷다

지난 4월 말,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고요히 자리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를 2주 동안 거닐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의 여행지였고, 실제로 그 땅에 발을 딛고 나서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왜 마다가스카르를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부르는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멸종위기의 여우원숭이 레무르

마다가스카르는 고요하고 다채로운 생명,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경관,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으로 익히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직접 마주한 그곳은, 말로만 듣던 희귀하고 찬란한 생물들 너머, 그 땅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形形色색의 흥미로운 문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세계를 응축해 놓은 듯했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마주친 현지인들이 한결같이 환한 미소로 낯선 여행자를 반겨주었던 순간들은 따뜻한 인사와 진심 어린 웃음으로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아련히 자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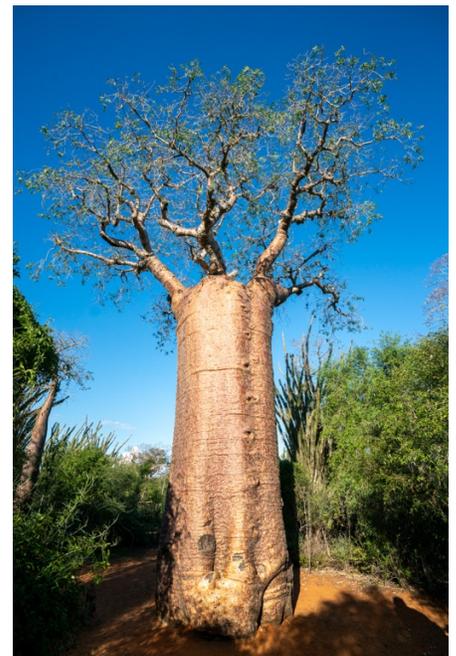
### 진화의 시간 속을 걷다

마다가스카르는 약 8,8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채로 진화해온 독보적인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섬에 서식하는 생물의 90% 이상이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이라 하니, 경이로운 자연의 기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단연 레무르(Lemur, 여우원숭이)입니다. 현재 112종이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서식지 파괴로 인해 대부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점은, 전 세계 카멜레온의 절반 이상이 이 섬에 서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물 중에서는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 불리는 바오밥 나무가 단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나무는 현지에서 카누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행 중 만난 현지인들이 "레무르를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했던 말이,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지 미루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 여행의 발걸음들

저희의 여정은 활기 넘치는 수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기 이틀 전 도착하여 개인적으로 퀸스 팰리스(Queen's Palace)를 둘러보고, 시내 곳곳을 거닐며 여행의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 거꾸로 자라는 바오밥 나무

이후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남서쪽 해안 도시 Ifaty 로 이동하여 3 박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눈부신 바다를 벗 삼아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ATV 투어 등 다채로운 해양 액티비티를 즐겼습니다. 카누를 타고 정겨운 어촌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고, 워터버팔로(Jebu)가 끄는 수레를 타고 Spiny Forest Reserve 를 탐방하며 야생의 레무르와 카멜레온을 직접 마주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다음 발걸음은 국립공원이 자리한 Ranohira 였습니다. Isalo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이 빚어낸 천연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야생의 Ring-tailed lemur 를 가까이서 관찰하며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Soa Zara Tree Planting Project 에 기꺼이 참여하여, 산림 벌채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난 현지인들

#### 문화를 담다

Ambalavao 로 향하는 길에는 Anja Community Reserve 에 들러 다시 한번 Ring-tailed lemur 와 조우했고, 숙소 인근의 전통 종이 공장도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이에 꽃잎을 곱게 올려 장식하는 아름다운 수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Ranomafana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레무르들을 만나며, 이 섬의 생태적 다양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 Antsirabe 를 지나며, 층층이 펼쳐진 계단식 논에서 땀 흘려 일하는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논길을 건다가 마주친 사람들은 벼를 추수하고 타작하는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었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전통 점심을 함께 나누고, 후식을 만들며, 노래와 춤 공연을 즐기며 현지인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하이라이트, Andasibe

마지막 여정은 Andasibe-Perinet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레무르인 Indri 의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까맣고 흰 털을 가진 이 레무르를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레무르, 그리고 하늘빛을 띠는 희귀한 새인 Coua 를 직접 마주하는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다시 안타나나리보로 돌아와 하룻밤을 보내고, 뭇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중 찍은 모든 사진과 슬라이드쇼는 아내의 섬세한 손길로 완성되었는데, 덕분에 이 소중한 기억들이 아름답게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마다가스카르가 남긴 생각들

마다가스카르는 1896 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다가 1960 년에 독립했지만, 2009 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 부패, 빈곤, 교육 부재 등의 문제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1 개국 중 173 번째라는 현실은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이 여행을 통해 한 나라의 지도력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순수하고 밝은 미소, 그리고 그들이 지닌 자연과의 공존 방식은 저희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와 생명.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사: 이 건정 (공대 69E)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Area, Inc.

2215 Fox Boro Ln, Naperville, IL 60564; (301) 395-7285; Website: [www.snuachicago.org](http://www.snuachicago.org), email: [snuachicago@gmail.com](mailto:snuachicago@gmail.com)